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된 현대차 쏘나타.

/현대자동차

## 쏘나타, 사우디 누빈다 공항택시 1000대 공급

**현대차** 운수기업 알 사프와 공급계약 중동지역 판매 확대·인지도 향상 추진

현대자동차쏘나타가 중동 최대 시장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으로 대거 진출한다.

현대차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운수기업 알 사프와 신형 쏘나타 1000대를 공항 택시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난달 22일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 100대를 인도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장관 살레 빈 나세르 알자세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운행 택시 신규 정책을 발표한 후 업계 최초로 처음 규정에 부합하는 택시를 공급하는

회사가 됐다. ▲외장 색상 초록색 통일 ▲총 운행 기간 5년 이내로 제한 ▲최첨단 결제·통역 스크린 장착 등이다.

공급되는 쏘나타는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개최된 제 41회 사우디 국제모터쇼(SIMS)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2020 세단 부문 최고의 차로 꼽히기도 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쏘나타, 코나, 신타페 등 총 12만5625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시장점유율 23.4%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쏘나타는 중형 세단에서 25%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인기 몰이 중이다.

현대차는 이번 수주를 통해 중동 지역 판매를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 스카이라이프 “요금만큼 VOD·OTT 이용”

**KT** 시청 트렌드 맞춰 상품 개편

KT스카이라이프는 3일 라이프스타일과 시청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스카이 올(A11)’, ‘스카이 포인트’, ‘스카이 초이스’로 개편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TV 요금 만큼 VOD 포인트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스카이 올’은 3년 약정 기준 월 1만2100원(인터넷결합시 8800원)으로, 초고화질(UHD) 5채널 포함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225개의 모든 실시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스카이 포인트’는 모든 실시간 채널 시청이 가능한 스카이 올 상품에 매월 주문형비디오(VOD) 5500포인트를 제공한다. 3년 약정 기준 월 1만4300원(인터넷결합시 1만1000원)에 VOD를 골라 볼 수 있도록 추가 VOD 포인트까지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스카이 초이스’는 3년 약정 기준 월 1만9800원(인터넷결합시 1만6500원)에 월 시청료만큼 매월 VOD 1만9800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VOD 포인트 대신 ▲웨이브 ▲왓챠플레이 ▲캐치온+키즈톡톡의 콘텐츠 혜택 중 매월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월 3만원에 ‘9GB+무제한 1Mbps’ 쓰세요”

**LGU+** 알뜰폰 5G 요금제 확대

LG유플러스가 자사 망을 임대하고 있는 알뜰폰(MVNO)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뜰폰 5G 요금제를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은 물론 ‘큰사람’, ‘스마트텔’, ‘에넥스’, ‘에스원’, ‘코드모바일’ 등 8개 사업자가 내주 5G 상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ACN’은 이달 중 출시 예정이다. 이로 인해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을 포함해 총 9개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가 5G 요금제를 제공하게 됐다.

출시 요금제는 월 기본 데이터 9기가바이트(GB) 소진 시 1메가비피에스(Mbps)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기본 180GB 데이터 소진 시 10Mbps로 이용 가능한 상품 두 가지다.

9GB 요금제는 LG유플러스 ‘5G 라이트’를 기반으로 한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5G 도매제공 대가를 66%로 인하해 월정액 5만5000원의 5G 라이트와 동일한 혜택을 월 3만원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180GB 요금제의 경우 월정액 7만5000원에 150GB(속도제한 5Mbps)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 ‘5G 스탠드’보다 데이터 혜택이 많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 5G 단독망·갤럭시 S20 출시 호재

# 이통3사 실적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단독망 5G 서비스 올해 상용화 정치권 통신비 인하 공약 ‘먹구름’ 새 단말 두고 출혈 마케팅 우려

올해는 이동통신 3사 실적이 본격적인 회복 기조에 접어드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늘어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기반의 무선 매출액 성장이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 정책이 공약으로 등장하고, 삼성전자 새 단말인 ‘갤럭시 S20’이 출시되면 출혈 마케팅 경쟁이 일어나는 등 위험요인도 산재하고 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4·4분기 연결기준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2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도 각각 1488억원, 1455억원이 예상돼 55.3%, 39.8% 늘어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KT의 경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8년 당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등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 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인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 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5544억원으로 시장 전망치(컨센서스) 5876억원을 하회할 전망이다. 5G 출혈 경쟁으로 인한 여파가 마케팅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메리츠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합산 마케팅비는 2조1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분기인 3·4분기에는 합산 마케팅비가 2조941억원을 기록했다. 마케팅비는 주로 5G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보조금을 쓰인다. 여기에 회계상 멤버십 포인트가 기존 영업비용에서 매출 차감으로 변경되며 매출 감소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는 4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 정책이 공약으로 등장하게 되면 통신사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데깡(데이터 0원) 시대’라는 슬로건을 세워 2022년까지 전국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올해 삼성전자 ‘갤럭시 S20’ 등 5G 단말기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마케팅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이동사는 5G 단독망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5G SA(스탠드 얼론)’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신종코로나 확산에 스마트폰 생산 차질

중 공장운영 지연 등 노동 공급 부족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누적 사망자 수가 361명으로 증가하며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5G가 상용화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장기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또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업계는 올해 5G 상용화로 인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 증가한 15억7000만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 시간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행되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5억2000만대였다.

S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연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밝혔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70%를 공급하고 생산하는데, 격리와 여행제한 등으로 인한 공장 운영 지연이 일시적으로 노동 공급의 부족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기존 예상치보다 5% 감소하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의 주요 공급 업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역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주요 스마트폰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5G 스마트폰의 판매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DK유엔씨, ‘동국시스템즈’로 사명 변경

‘ICT 솔루션 컴퍼니’ 비전 선포

동국제강그룹의 정보기술(IT) 전문 기업인 DK유엔씨가 ‘동국시스템즈’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동국시스템즈는 1997년 탑승정보통신으로 시작해 2005년 동국제강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DK유엔씨라는

사명을 썼다.

지난해 10월 ‘최고 경쟁력의 토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컴퍼니’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사명 변경을 추진해왔다.

동국시스템즈는 올해 네트워크사업실을 신설하고 자체 솔루션 개발,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대외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국시스템즈의 새로운 CI.

김광선 동국시스템즈 대표이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키운 솔루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토털 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